



소셜 뉴스 이용과 뉴스 관여가 세대별 정치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예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양소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Social News Use and News Engagement on Civic Engagement*

Yeji Kwon**

Research Fellow,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Media & Advertising Research Institute

Jee Young Lee***

Lecturer, School of Arts and Communication, Faculty of Arts and Design, University of Canberra

Soeun Yang****

Research Associate,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dolescents' sharing of digital news is an increasingly significant issue within the field of digital citizenship, and accessing and using digital information has been shown to affect their lives and future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young people's engagement with news-related communication and news literacy education on their news consumption and civic engagement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significance of factors between adolescent and adult groups. A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national survey datasets on youth news media use (13 to 18 years old, N=1,665) and Korean news media use (18 to 60 years old, N=3,799).

This study reveals that news access via social media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ws engagement (commenting and sharing) regardless of age cohort. However, significant generational gaps in media, which determine the influence of social news use on news com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re

* This study was awarded 2018 Korea Press Foundation's 3rd Annual News Audiences and Journalists' Statistical Research Award and presented at the 2018 Autum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Conference and 2019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이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3회 언론수용자·언론인 의식조사 통계 활용 학술대회에 선정되어 2018년 가을철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2019년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yeji@kobaco.co.kr, 1st author

*** Jee.Lee@canberra.edu.au

**** soeun022@snu.ac.kr, corresponding author

observed in our regression models. News literacy education is related to engagement with news commenting for adolescents and news sharing for adults. For adolescents, news literacy education is related to increased participation in online public discussions, whereas for adults, it is related to increases in news sharing on different platforms.

This study reaffirms the path from news use to news engagement and the paths from news engagement to civic engagement. Also, the media for social news are important to increasing civic engagement.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news shared via messaging apps significantly predicts civic engagement among adolescents; whereas social news shared via social media significantly predicts civic engagement among adults. Recently, researchers have begun to recognize the different news consumption practices that occur within the different types of online spheres where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s are based. Our results confirm these different practices depending on the type of social network and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networked news engagement and sharing practices. As news engagement of news consumers, which was not prominent in the context of conventional news consumption, has become more readily available in the digital news environment, the significance of news engagement is highlighted in this study. This study will further discuss the impact of news com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on online civic communication among adolescents.

Keywords: social news use, commenting, news sharing, civic engagement, newspaper in education

1. 서론

매체가 발달하고 뉴스 플랫폼에 독자나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등장하면서 뉴스 이용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인 위치로 이동했다.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뉴스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더해 뉴스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행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뉴스가 일상에서 대화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과 비교하면 주변인에 한정되었으며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은 많지 않았다. 오늘날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뉴스와 관련된 대화를 자유롭게 손쉽게 할 수 있다. 사적인 공간인 메시징앱(messaging app)에서의 뉴스 공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늘날 뉴스 이용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또는 사적 소통 공간에서 행해지는 소셜 뉴스(social news) 이용과 뉴스 관련 대화(news-related communic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뉴스 이용은 정치적 관심 고양, 정치적 지식 습득, 투표 행위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예, 이준웅·이종혁·이상원·황현정, 2019; 조성동·나은경, 2011; Chaffee, Ward, & Tipton, 1970; Gil de Zúñiga, Molyneux, & Zheng, 2014; Östman, 2014). 이, 샤, 맥로드(Lee, Shah, & McLeod, 2013)는 정치사회화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Communication Mediation Model)을 적용하며 뉴스 이용과 함께 의견 교환의 효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뉴스 이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서 면대면 정치 대화와 온라인 정치대화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면서 뉴스와 관련 시민적 대화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한다. TV뉴스, 신문, 관습적 온라인 뉴스, 비관습적 온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2008년 검증한 이 모델은 현재 사회 연결망 서비스 및 메시징 서비스의 소셜 뉴스 이용 환경에 적용하여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매체와 다르게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는 가족, 또래집단, 직장동료 등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연결된 사람들 속에서 전파된다. 이런 상호작용적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는 사람들의 대화 소재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러한 뉴스 공유 행위가 일반인들의 일상이 되고 관계 행동으로 자리 잡으면서(김은미·임소영·박현아, 2017) 새로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그 효과는 청소년과 성인 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Lee et al., 2012). 디지털 미디어를 태어나면서 접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과 디지털 미디어를 학습하며 접한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 온라인 콘텐츠 이용, 사고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Prensky, 2001a, 2001b, 2004). 특히 청소년의 뉴스 이용은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차이를 보인다: 1)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와 메시징 앱을 중심으로 한 소셜 뉴스 이용 증가, 2) 팟캐스트 등의 대안적 뉴스 채널 이용 증가, 3) 자기 정체성 및 개인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 관심 증가, 4) 전통적 형태의 뉴스 미디어 및 저널리즘에 대한 낮은 지식, 5) 디지털 뉴스 미디어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

게다가 청소년은 민감한 정치사회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Flanagan & Galloway, 1995). 정치 태도와 가치관, 정체성이 상당 부분 형성된 성인 세대와 비교할 때, 청소년의 소셜 뉴스 이용은 적극적인 온라인 의견 공유로 이어지고, 또 이러한 온라인 공유 행위가 사회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다. 이들은 콘텐츠 생산과 공유를 일상에서 활발하게 행하는 세대이다(Lenhart, Madden, Macgill, & Smith, 2007). 특히, 소셜 뉴스를 바탕으로 한 뉴스 대화의 범위가 학교/지역 중심의 친구인지, 또는 그 범위를 넘어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인지는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한편,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뉴스 이용은 '읽기'라는 중요한 인지 과정을 동반한다. 개인이 보유한 뉴스 리터러시에 따라 뉴스 이용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더 적극적으로 뉴스 공유 활동과 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며(이숙정·양정애, 2017), 반대로 신중을 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뉴스 읽기, 쓰기 등 관련 소양을 함양시키는 실질적인 교육 중 하나인 신문활용교육(Newspapers in Education, 이하 NIE) 경험자는 뉴스 리터러시 수준과 정치사회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송원숙, 2020; 이숙정·양정애, 2017; Claes & Quintelier, 2009).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또는 NIE 경험은 뉴스 이용과 뉴스 공유 및 대화, 이들이 정치 참여에 나아가는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소셜 뉴스를 비롯한 뉴스 이용이 뉴스 관련 대화로서의 뉴스 관여(뉴스 댓글, 뉴스 공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뉴스 이용과 뉴스 관여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각 영향력에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NIE가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1) 소셜 뉴스와 정치적 효과

뉴스 이용의 시민적, 정치적 참여의 효과를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적용해왔다(Jung, Kim & De Zúñiga, 2011; Lee et al., 2013; Shah, Cho, Eveland, & Kwak, 2005). 정보적 미디어 이용을 통해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토론과 대화가 증진되면서 참

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 모델의 골자인데, 대화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다양한 관점에 노출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또한, 이 토론과 대화로서 시민적 소통(civic communication)을 오프라인상의 지인과의 면대면 대화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토론 참여를 살펴봤다는 데에서 이 모델의 특징이 있다. 온라인상의 토론 및 대화는 가까운 지인 뿐 아니라, 광범위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

뉴스 이용으로부터 시민들 간의 소통이 증대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논의하는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은 소셜 뉴스 소비와 공유가 시민들의 주요 뉴스 습관으로 자리 잡은 현재 다시 그 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셜 뉴스는 전통적인 형태의 뉴스(TV, 신문, 라디오)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뉴스에 관여하게 하며(Szabo & Huberman, 2010) 뉴스를 보느냐 안 보느냐 혹은 관여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달려있다(Chung, 2008)는 점에서 뉴스와 이용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형태의 뉴스와 매우 다르다. 즉,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뉴스의 의제 설정 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된다(Goode, 2009). 이와 마찬가지로(Lee & Ma, 2012)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이용의 특성이 이용자들에게 좀 더 권한(power)을 부여함으로써 뉴스 공유라는 행위의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뉴스 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최근 몇몇 연구(Ihm & Kim, 2018)들은 다른 형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의 뉴스 공유 행위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좀 더 사적인 공간인 메시징 앱 상에서의 뉴스 공유와, 페이스북과 같은 보다 공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의 뉴스 공유 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한다. 최근 들어 메시징 앱에서의 뉴스 공유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뉴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뉴만(Newman et al., 2018)은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뉴스 공유로 인한 의견 충돌에 대한 피로감 증가와 더불어, 좀 더 친한 지인들이 모인 메시징 앱에서의 뉴스 공유가 좀 더 안전(safer)하다는 뉴스 이용자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 좀 더 타깃화된 뉴스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뉴스 이용자들이 점차 메시징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유로 보고 있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에 따라 이용자들의 뉴스 공유에 미치는 요인 또한 달라질 수 있다(Ihm & Kim, 2018).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새로운 뉴스 이용행태로서 소셜 뉴스 소비는 기존의 텔레비전 뉴스 및 신문과 같은 전통매체 뉴스와, 신문사 중심의 전통적 인터넷 뉴스에 더하여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제했다. 최근의 시민적 참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식견을 갖춘 시민(informed citizen) 혹은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에서 자발적 시민(actualized

citizen)으로의 개념적 변화가 일고 있음을 지적한다(김은미, 양소은, 2013; Bennett, 2008; Kligler-Vilenchik, 2017; Shehata, Ekström & Olsson, 2016). 기존의 대중매체나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한 정치사회화가 아닌,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네트워크화된 정보들이 전달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비판습적인 시민 참여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집단적인 행동으로서 서명운동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대안적 형태의 참여이다. 이와 같은 증진된 참여에 대한 요인으로서 소셜 미디어 상의 뉴스 이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확인됐다(Gil de Zúñiga, Jung & Valenzuela, 2012; Gil de Zúñiga, Molyneux, & Zheng, 2014; Vaccari et al., 2015; Valenzuela, Arriagada, & Scherman, 2012). 소셜 뉴스는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있고 관계성을 내포하는 뉴스 소비의 형태로서 뉴스의 정치적 효과가 상당히 증폭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뉴스매체들과 다른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뉴스 소비의 효과는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친구규범이나 친구들/가족들과의 정치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 요소로 밝혀져 왔다(Dostie-Goulet, 2009).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온 메신저 뉴스와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소셜 뉴스는 친구들의 정치적 입장과 규범으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뉴스 소비와 인터넷 뉴스 소비 그리고 소셜 뉴스 소비가 대안적 정치 참여 행위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뉴스 이용과 시민적 소통

시민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은 왜 이러한 의견의 교환이 정치 참여를 낳게 되는지 '의견 표현'의 효과(expression effect, Shah, 2016 참고)에 집중한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으로부터 정치적 자기 개념을 확고히 하며(Lane et al., 2019), 의견지도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낳는다(Weeks, Ardèvol-Abreu, & Gil de Zúñiga, 2017)고 설명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민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의 뉴스 관련 대화에 주목한다. 특히, 뉴스 기반의 의견 표현과 대화가 어떠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인지를 유념하여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를 구분하여 살핀다.

뉴스 댓글은 언론사나 포털에서 게시한 뉴스 페이지마다 마련된 댓글 공간에서의 토론 참여로서 이 공간에서는 각 뉴스에 대한 여러 대화가 오간다(Hermida, Fletcher, Korell & Logan, 2012; Hille & Bakker, 2014). 이 공간은 개인의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커뮤니케

이선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public)과의 시민적 소통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1)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2)다양한 사람들과 3)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이 오가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뉴스 공유는 뉴스 댓글에 비해 더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 뉴스 댓글이 대중(mass public)과의 “뉴스 내용”에 대한 소통이라면, 뉴스 공유는 자신의 개인적 관계망 내에서 뉴스를 공유함으로써 “교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김과 임(Kim & Ihm, 2018)은 뉴스 공유는 콘텐츠 중심이라기 보다 상당히 관계 중심적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제시성향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예측요인을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상들과의 소통은 아니지만 뉴스 공유는 자신의 관계망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전략으로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뉴스 공유는 소셜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친구들이 올린 뉴스를 접하거나, 친구들로부터 메시징 뉴스를 접한다면, 친구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뉴스 공유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뉴스 댓글과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에서 설명한대로 정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등(Lee et al., 2013)은 특히 온라인상의 시민적 소통은 말이 아닌 글로써 정치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구성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은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h, 2016; Valkenburg, 2017).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가 가지는 시민적 소통으로서의 의미가 다르듯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과 대화, 그리고 정치 참여 증대의 과정에서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세대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와 메시징 앱을 중심으로 한 소셜 뉴스 이용 증가(Newman et al., 2017;2018)와 자기 정체성 및 개인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에 대한 관심 증가(Mitchell, Gottfried, & Matsa, 2015; Taylor, 2014)와 같이 성인 세대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소비가 뉴스에 대한 관여, 그리고 정치 참여라는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Lee et al., 2013)에서는 청소년 세대는 특히 온라인상의 시민적 소통이 뉴스와 참여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설명한다. 정치사회화의 민감기에 있는 청소년 세대에게 정치적 의견 교환의 경험은 이들의 정치적 정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중과의 교류 경험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가 가지는 의미가 성인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3) NIE 경험, 뉴스 관여, 정치참여와의 관계

뉴스 소비, 시민적 대화,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의 경로에서 내적 대화로서 성찰을 추가적으로 살핀 조 등(Cho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에 바탕한 사람들 간의 대화(interpersonal conversation) 뿐 아니라 뉴스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는 내적 대화(intrapersonal reflection) 역시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밝힌다.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의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 환경이 반대 의견에 대한 수용, 합리적인 토론, 시민적인 참여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범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hah et al., 2016). 개인의 합리성, 시민적 자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의 경로의 편차를 설명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뉴스에 대한 이해와 태도, 즉 뉴스 리터러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뉴스 리터러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NIE 경험(송원숙, 2020; 이숙정·양정애, 2017 등)에 주목했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배포가 어느 때 보다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은정·유홍식, 2020; 염정운·정세훈, 2019; 이숙정·양정애, 2017; 차유리·한창현, 2018; 허윤철, 2020; Newman et al., 2018).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은 NIE의 효과로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다(이화행·이정기, 2011; 정문성·이종연·서정희·조규복, 2008; Behrman, 2006; Luke, 2018). NIE는 주로 뉴스의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특정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자의 해설 및 해석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의 뉴스 활용 교육에서는 다양한 뉴스 정보원에 대한 평가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Mirra, Morrell & Filipiak, 2018).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게 되며, 이는 나아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 비판적 활용과 메시지 생산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우 시민적 참여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Kahne, Lee, & Feezell, 2012)와, 비판적인 정보 리터러시는 시민참여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Kim & Yang, 2016)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숙정과 양정애(2017)의 연구에서도 NIE 경험이 뉴스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며,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적 자질을 토대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시민교육이자 정치교육과 목적을 공유하는 NIE(설규주 외, 2011) 경험은 뉴스 소비, 뉴스에의 참여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시민적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뉴스 이용과 뉴스 대화의 효과에 NIE 경험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판적인 뉴스 리터러시가 함양되어, 뉴스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NIE 경험은 함양된 비판적 사고력을 토대로 그 뉴스에 대하여 대화하고 공

유하는 시민적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력은 온라인상의 시민적 소통과 실제 오프라인 시민운동에 참여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미나(2011)에 따르면 뉴스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같은 뉴스를 수용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관점에 따라 판단을 하며, 더 균형적으로 정보를 취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화행과 이정기(2011)의 연구에서도 NIE 경험이 비판적 사고 능력과 더불어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온라인상의 감정적 메시지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치 참여가 다소 동원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Shah et al., 2017), NIE 경험은 뉴스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 뿐 아니라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분출에 대하여 더 숙려하게 함에 따라 다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있다(Boywer & Kahne, 2020).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뉴스 이용과 NIE 변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의 주요 변인 및 관계를 확장하여 뉴스 이용과 정치사회화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뉴스 이용과 효과가 세대(청소년과 성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뉴스 이용과 뉴스 댓글 및 공유 관계, 그리고 의견 공유 행위가 사회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적 과정을 이 등(Lee et al., 2012)이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호작용성을 가진 소셜 뉴스 미디어(예, 사회 연결망 서비스 기반, 메시징 서비스 기반 뉴스 서비스), 전통 뉴스 미디어가 뉴스 댓글 및 뉴스 공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뉴스 댓글 및 뉴스 공유는 정치사회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뉴스 이용을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NIE가 어떤 조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뉴스 이용이 뉴스 댓글 및 뉴스 공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뉴스 이용, 뉴스 댓글, 뉴스 공유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NIE 경험은 뉴스 댓글, 뉴스 공유,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NIE 경험은 뉴스 이용, 뉴스 댓글, 뉴스 공유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2017a, 2017b)이 공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의 자료를 활용했다.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교육통계연보'(2015년 기준)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 후 무작위 추출하여 2016년 6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총 2,291명의 응답자 자료가 수집됐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응답자를 분석에 활용했다.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대상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주민등록인구(2016년 4월 기준)에 따라 제곱근비례배분 후 층화 확률비례 계통추출하여 2016년 6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가 진행됐다. 총 5,128명의 응답자 자료가 수집됐다. 본 연구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응답자를 분석에 활용했다. 청소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석에 활용했다. 총 1665명 중 남성 845명(50.8%), 여성 820명(49.2%)이고, 중학생은 818명(49.1%), 고등학생은 847명(50.9%)이었다. 분석에 활용한 20-50대 성인 응답자는 총 3799명으로 남성 1939명(51.0%), 여성 1860명(49.0%)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02명(21.1%), 30대 912명(24.0%), 40대 1069명(28.1%), 50대 1016명(26.7%)이었다.

2) 측정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동일하게 제시된 설문문항을 활용했다.

(1) 뉴스 이용

응답자들의 뉴스 이용 변인을 위해서는 설문문항의 매체별 뉴스 이용 빈도 변수를 이용했다.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뉴스 이용량(이하 메시징)은 두 조사 모두에서 “지난 1주일 동안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로 물었다. 1 = 1일부터 7 = 매일까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전혀 이용 안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 메시지 서비스 이용 질문 전에 “메시징 서비스는 카카오톡, 라인, 네이버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참고로 핸드폰에서 제공하는 기본 문자 서비스는 제외합니다”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SNS를 통한 인터넷 뉴스 이용량(이하 SNS)은 두 조사 모두에서 “지난 1주일 동안 SNS를

통해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를 1 = 1일부터 7 = 매일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물었다. 전혀 이용 안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 SNS 이용 관련 질문 전에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언론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하, eNews)은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다음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셨나요?” 문항 중 ‘신문, 방송사 홈페이지(조선닷컴, 동아닷컴, 매경닷컴 등)’항목을 사용했다.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면접원이 사례(이미지)가 포함된 보기카드를 제시해주며,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포털이 아닌 언론사의 공식 홈페이지(기존 신문, 방송사의 인터넷판)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뉴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를 물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동일하게 전혀 이용 안함 = 0부터 각 1일씩 증가하여 매일 이용 = 7까지 8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TV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하 TV),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 이용량(이하 종이신문), 라디오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하 라디오)은 “지난 1주일 동안 TV 뉴스/시사보도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셨습니까?”, “지난 1주일 동안 종이신문을 얼마나 자주 읽으셨습니까?”, “지난 1주일 동안 라디오를 통해 뉴스/시사보도를 얼마나 자주 청취하셨습니까?”를 전혀 이용 안함 = 0부터 각 1일씩 증가하여 매일 이용 = 7까지 8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2) 뉴스 관여: 뉴스 댓글, 뉴스 공유

뉴스 관여 변인을 위해서는, 설문문항 중, 뉴스 댓글, 뉴스 공유 항목을 이용했다. 이 두 항목은 지난 1년 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가 있는지 물으며, “인터넷 뉴스에 직접 댓글을 쓴 적이 있다”, “인터넷 뉴스에 다른 삶과 공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문항을 제시했다. 경험있음은 1로 없음은 0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3) 정치 참여: 서명

정치 참여 변인으로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분석에 이용했다. 이 항목은 지난 1년 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가 있는지 물으며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문항을 제시했다. 참여 경험 있음은 1로 없음은 0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4) NIE 경험

NIE 경험은 NIE 경험 유무를 측정할 변수를 이용했다. NIE 경험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NIE 즉 ‘신문’ 혹은 ‘뉴스’ 활용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과수업,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램, 방과 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수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답해 주세요.”로 제시했다. 경험 있음은 1로 없음은 0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5)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인터넷 이용량

청소년 조사에서는 성별(남성:0, 여성, 1), 연령, 학교급(중, 고등학교), 거주 지역을, 성인 조사에서는 성별 (남성:0, 여성, 1), 연령, 거주 지역, 학력, 가구소득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사용했다. 인터넷 이용량은 “지난 1주일 동안 스마트폰/태블릿 PC로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 하셨습니까?”를 1 = 1일부터 7 = 매일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물었다. 전혀 이용 안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

3) 분석방법

SPSS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활용해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를 확인했다. 청소년과 성인 집단 간 뉴스 매체 이용정도 비교를 위해 t검증을, 뉴스 댓글, 뉴스 공유, 정치 참여 인 서명, NIE 경험 유무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했다.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NIE 경험이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처리된 뉴스 매체 이용, 더미 변수인 댓글, 공유 행동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했다.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에는 다우슨(Dawson, 2018)이 제공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상호작용 매크로를 이용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렸다.

4. 연구결과

1) 청소년과 성인의 주요 변인 기술통계

청소년과 성인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더불어 집단 간 차이를 t검증으로 알아보았다. 인터넷 이용량은 청소년($M = 6.04$, $SD = 1.99$)이나 성인($M = 6.13$, $SD = 2.03$)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뉴스 이용은 청소년($M = 0.83$, $SD = 1.74$)이 성인($M = 0.83$, $SD = 1.74$)에 비해 메시징 이용량이 많았다, $p < .001$. SNS 또한 청소년($M = 1.78$, $SD = 2.51$)이 성인 ($M = 0.70$, $SD = 1.78$)에 비해 SNS 이용량이 많았다, $p < .001$. 언론사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eNews와 전통 매체인 TV, 종이신문, 라디오에서는 성인이 청소년 보다 높은 이용량을 보였다(〈Table 1〉 참조).

Table 1. Results of T-test on News Use by Adolescents and Adults

Categories	Adolescents (N=1665)		Adults (N=3799)		t
	M	SD	M	SD	
Amount of Internet use	6.04	1.99	6.13	2.03	-1.50
Messaging	0.83	1.74	0.67	1.74	3.31***
SNS	1.78	2.51	0.70	1.78	15.89***
eNews	0.53	1.21	0.69	1.80	-3.84***
TV	1.32	1.98	4.62	2.76	-49.88***
Newspaper	0.31	1.11	0.82	1.92	-12.22***
Radio	0.21	0.99	0.59	1.67	-10.50***

*** $p < .001$.

뉴스 댓글, 뉴스 공유, 서명은 모두 청소년이 성인 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Table 2〉 참조). 뉴스 댓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5%, 성인은 7.9%였다, $\chi^2 = 113.38$, $p < .001$. 뉴스 공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9.9%, 성인은 17.7%였다, $\chi^2 = 311.01$, $p < .001$. 서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9.3%, 성인은 14.8%였다, $\chi^2 = 157.82$, $p < .001$. NIE 경험 역시 청소년의 31.0%가 NIE 경험이 있었던 반면, 성인은 5.7%가 NIE 경험이 있었다, $\chi^2 = 636.88$, $p < .001$.

Table 2. Results of Chi-square Test on Commenting on, News Sharing, Civic Engagement, and NIE Experience by Adolescents and Adults

Category		Adolescents (N=1665)	Adults (N=3799)	χ^2
Commenting on	No	1372 (82.4%)	3387 (92.1%)	113.38***
	Yes	293 (17.5%)	299 (7.9%)	
News sharing	No	1000 (60.1%)	3128 (82.3%)	311.01***
	Yes	665 (39.9%)	671 (17.7%)	
Civic engagement	No	1177 (70.7%)	3238 (85.2%)	157.82***
	Yes	488 (29.3%)	561 (14.8%)	
NIE experience	No	1149 (69.0%)	3582 (94.3%)	636.88***
	Yes	516 (31.0%)	217 (5.7%)	

*** $p < .001$.

2) 뉴스 이용이 뉴스 댓글에 미치는 영향과 NIE 경험의 조절효과

뉴스 이용이 뉴스 댓글에 미치는 영향과 NIE 경험의 조절효과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했다(〈Table 3〉 참조). 청소년은 뉴스 댓글에 메시징($B = .11$, $p < .05$), SNS($B = .07$, $p < .05$), TV($B = .08$, $p < .05$), 종이신문($B = .13$, $p < .07$), 라디오($B = .16$, $p < .05$), NIE 경험($B = .29$, $p < .05$)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NIE 경험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은 메시징($B = .07$, $p < .05$), SNS($B = .20$, $p < .001$), eNews($B = .09$, $p < .05$)가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01), 라디오($B = .12, p < .01$)는 뉴스 댓글을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TV($B = -.07, p < .01$)는 뉴스 댓글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TV와 NIE 상호작용항($B = .24, p < .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V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 많고 NIE 경험이 있을 때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참조).

Table 3. News Use, NIE Experience, Interaction Terms on Commenting on

Commenting on	Adolescents (N=1665)				Adults (N=3799)			
	B	SE	Wals	Exp(B)	B	SE	Wals	Exp(B)
Control								
Gender	.04	.13	.10	1.04	-.23	.13	3.22	.79
Age	.01	.04	.02	1.01	-.03***	.01	23.57	.97
Amount of Internet use	.05	.04	1.53	1.05	.09 ⁺	.05	3.44	1.10
1								
Messaging	.11*	.05	5.43	1.12	.07*	.03	4.29	1.07
SNS	.07*	.04	4.26	1.08	.20***	.03	41.83	1.22
eNews	.10	.07	2.12	1.10	.09**	.03	8.48	1.09
TV	.08*	.04	4.17	1.08	-.07**	.03	7.20	.93
Newspaper	.13 ⁺	.07	3.59	1.14	.05	.04	1.80	1.05
Radio	.16*	.07	4.50	1.17	.12**	.04	10.00	1.12
2								
NIE experience	.29*	.14	4.17	1.34	-.01	.33	.00	.99
3								
Messaging * NIE experience	-.07	.08	.70	.94	-.02	.09	.07	.98
SNS * NIE experience	-.06	.06	.95	.94	.06	.09	.40	1.06
eNews * NIE experience	.12	.10	1.45	1.12	.13	.08	2.74	1.14
TV * NIE experience	-.05	.07	.57	.95	.24**	.08	9.92	1.27
Newspaper * NIE experience	-.03	.10	.06	.97	.08	.11	.55	1.08
Radio * NIE experience	.02	.11	.04	1.02	-.17	.13	1.71	.84
Nagelkerke R ²	.07				.16			
Chi-square of model (df)	71.37(16)***				259.04(16)***			
Hosmer & Lemeshow test (df)	9.06(8) ^{n.s.}				10.41(8) ^{n.s.}			

+ $p < .07$. * $p < .05$. ** $p < .01$. *** $p < .001$. Male = 0, female = 1. If respondent has experienced NIE or Commenting on = 1, or not = 0.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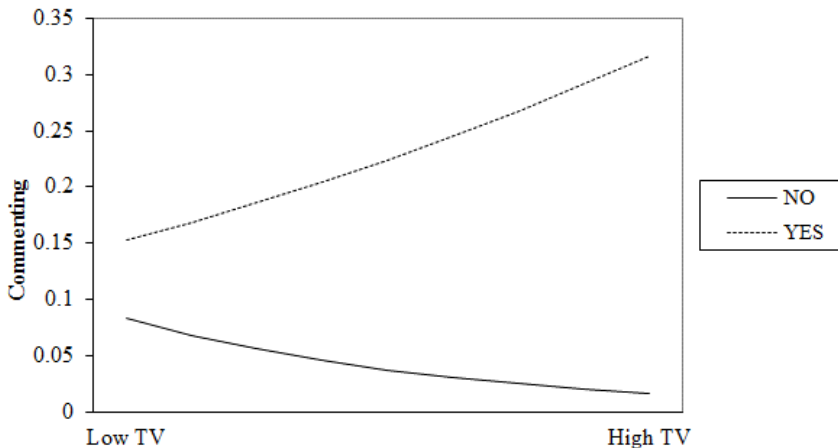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TV and NIE Experience on Commenting on of Adults

Note.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group with no NIE experience, and the dotted line represented the group with NIE experience.

3) 뉴스 이용이 뉴스 공유에 미치는 영향과 NIE 경험의 조절효과

뉴스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4〉 참조), 청소년의 경우 뉴스 공유에 메시징($B = .10, p < .05$), SNS($B = .11, p < .01$), eNews($B = .14, p < .05$), 종이신문($B = .14, p < .05$), 라디오($B = .15, p < .05$)가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NIE 경험은 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NIE 경험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News Use, NIE Experience, Interaction Terms on News Sharing

News sharing	Adolescents (N=1665)				Adults (N=3799)				
	B	SE	Wals	Exp(B)	B	SE	Wals	Exp(B)	
Control	Gender	.61***	.11	32.05	1.84	.05	.09	.29	1.05
	Age	.03**	.03	6.95	1.09	-.03***	.01	40.39	.97
	Amount of Internet use	-.04	.03	2.61	.96	.16***	.04	18.16	1.17
1	Messaging	.10*	.04	5.92	1.11	.12***	.03	20.86	1.12
	SNS	.11***	.03	16.12	1.12	.22***	.02	82.69	1.24
	eNEWS	.14*	.06	5.84	1.15	.03	.02	1.35	1.03
	TV	.05	.03	2.06	1.05	-.05**	.02	7.92	.95
	Newspaper	.14*	.06	5.54	1.15	.07*	.03	6.41	1.07
	Radio	.15*	.07	4.58	1.16	.10***	.03	12.94	1.11
2	NIE experience	.20	.11	3.08	1.22	.43 ⁺	.23	3.48	1.54
3	Messaging * NIE experience	.07	.07	.86	1.07	-.06	.08	.58	.94
	SNS * NIE experience	.00	.05	.00	1.00	-.05	.08	.44	.95
	eNews * NIE experience	-.01	.09	.03	.99	.16*	.07	4.60	1.17
	TV * NIE experience	.02	.06	.18	1.02	.12*	.06	4.65	1.13
	Newspaper * NIE experience	-.10	.09	1.07	.91	.15	.09	2.63	1.16
	Radio * NIE experience	-.05	.11	.18	.96	-.10	.10	.98	.90
Nagelkerke R ²		.12				.19			
Chi-square (<i>df</i>)		159.12(16)***				467.96(16)***			
Hosmer & Lemeshow test (<i>df</i>)		14.86(8) ^{n.s.}				19.33(8)*			

* $p < .05$. ** $p < .01$. *** $p < .001$. Male = 0, female = 1.

If respondent has experienced NIE or Commenting on = 1, or not = 0.

성인의 경우 메시징($B = .12, p < .001$), SNS($B = .22, p < .001$), 종이신문($B = .07, p < .05$), 라디오($B = .10, p < .001$), NIE 경험($B = .43, p < .07$)은 뉴스 공유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TV($B = -.05, p < .01$)는 뉴스 공유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eNews와 NIE 상호작용항($B = .16, p < .05$), TV와 NIE 상호작용항($B = .24, p < .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News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 많고 NIE 경험이 있을 때(〈Figure 2〉 참조), TV를 통한 뉴스 이용량이 많고 NIE 경험이 있을 때(〈Figure 3〉 참조), 인터넷 뉴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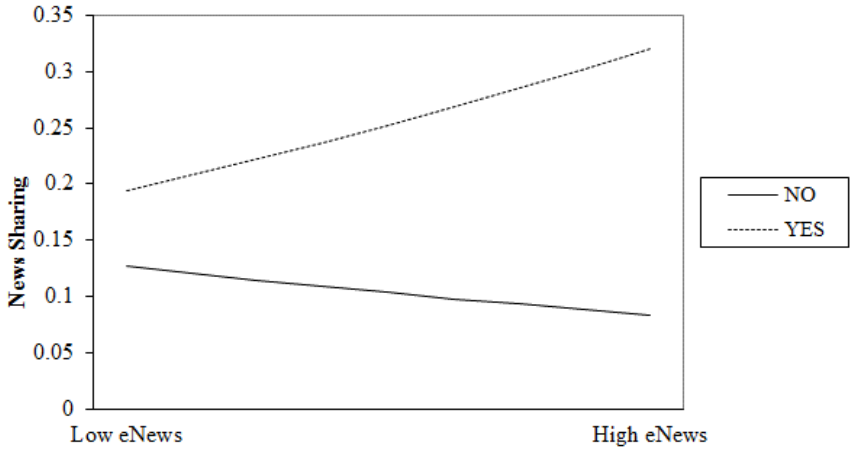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Effect of eNews and NIE Experience on News Sharing of Adults

Note.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group with no NIE experience, and the dotted line represented the group with NIE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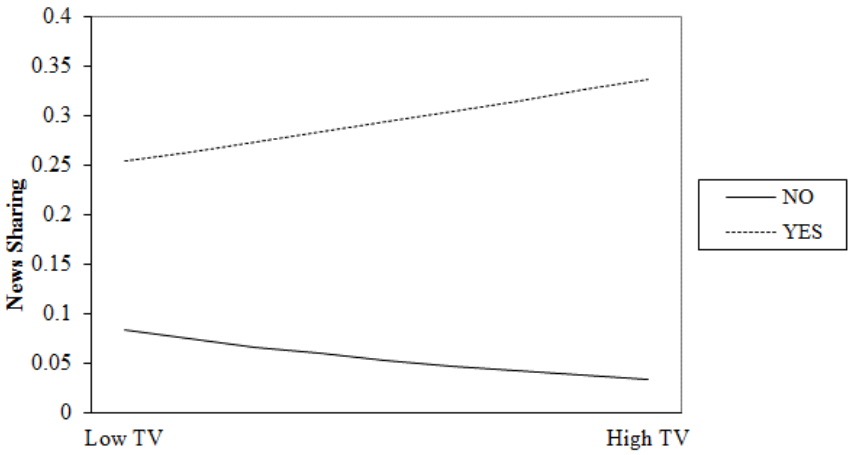


Figure 3. Interaction Effect of TV and NIE Experience on News Sharing of Adults

Note.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group with no NIE experience, and the dotted line represented the group with NIE experience.

4) 뉴스 이용, 뉴스 댓글 및 뉴스 공유가 서명에 미치는 영향과 NIE 경험의 조절효과

정치 참여인 서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5〉 참조), 청소년의 경우 서명에 메시징($B = .08, p < .07$), eNews($B = .12, p < .07$), 댓글($B = .46, p < .001$), 공유($B = .80, p < .001$), NIE 경험($B = .24, p < .07$)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NIE 경험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News Use, Commenting on, News Sharing, NIE Experience, Interaction Terms on Civic Engagement

	Petition Signing	Adolescents (N=1665)				Adults (N=3799)			
		B	SE	Wals	Exp(B)	B	SE	Wals	Exp(B)
Control	Gender	.72***	.12	36.97	2.06	.35***	.10	11.23	1.41
	Age	.19***	.04	27.86	1.20	-.01	.01	.99	.99
	Amount of Internet use	.03	.03	.85	1.03	.05	.03	2.29	1.05
1	Messaging	.08 ⁺	.04	3.34	1.08	-.04	.03	1.26	.96
	SNS	.01	.03	.22	1.01	.06 ⁺	.03	3.48	1.06
	eNews	.12 ⁺	.06	3.52	1.12	.06*	.03	4.57	1.06
	TV	-.02	.04	.19	.98	-.02	.02	.76	.98
	Newspaper	-.03	.07	.19	.97	.05	.03	2.95	1.05
	Radio	.11	.07	2.50	1.12	.03	.03	.98	1.03
2	Commenting on	.46***	.19	6.09	1.58	1.44***	.16	84.88	4.23
	News sharing	.80***	.15	29.07	2.22	1.54***	.12	156.95	4.66
3	NIE experience	.24 ⁺	.13	3.65	1.28	.44 ⁺	.25	3.29	.07
4	Messaging * NIE experience	-.13	.07	3.12	.88	.09	.08	1.14	1.09
	SNS * NIE experience	.04	.05	.49	1.04	-.09	.08	1.13	.91
	eNews * NIE experience	-.01	.09	.01	.99	.01	.07	.02	1.01
	TV * NIE experience	.08	.06	1.79	1.09	.04	.06	.48	1.04
	Newspaper * NIE experience	.00	.11	.00	1.00	.13	.09	2.01	1.14
	Radio * NIE experience	-.12	.11	1.09	.89	-.08	.11	.50	.92
	Commenting on * NIE experience	-.01	.30	.00	.99	-.64	.47	1.85	.53
	News sharing * NIE experience	.09	.26	.12	1.09	-1.00**	.39	6.68	.37
Nagelkerke R ²		.17				.23			
Chi-square of model (df)		207.63(20)***				528.97(20)***			
Hosmer & Lemeshow test (df)		3.658(8) ^{n.s.}				4.333(8) ^{n.s.}			

⁺ $p < .07$. * $p < .05$. ** $p < .01$. *** $p < .001$. Male = 0, female = 1.
If respondent has experienced NIE or Commenting on = 1, or not = 0.

성인의 경우 SNS($B = .06, p < .07$), eNews($B = .06, p < .05$), 뉴스 댓글($B = 1.44, p < .001$), 뉴스 공유($B = 1.54, p < .001$), NIE 경험($B = .44, p < .07$)이 서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스 공유와 NIE 상호작용항($B = -1.00, p < .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뉴스 공유

를 해본 경험이 있고, NIE 경험이 있을 때, 서명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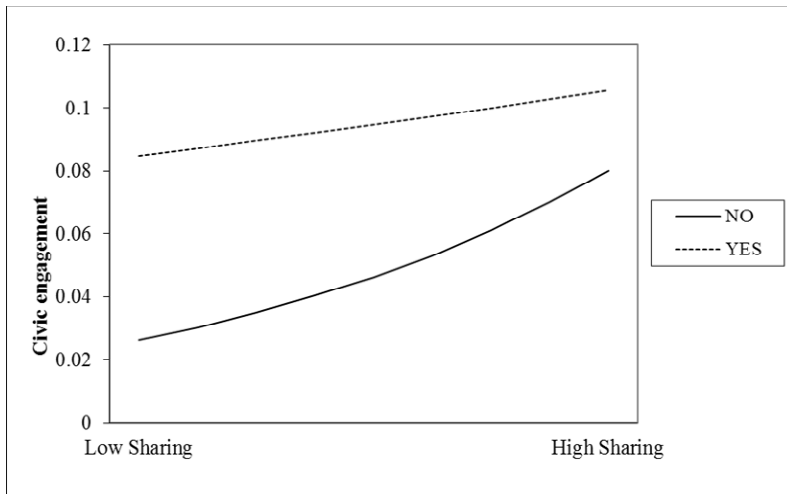


Figure 4. Interaction Effect of News Sharing and NIE Experience on Civic Engagement of Adults

Note.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group with no NIE experience, and the dotted line represented the group with NIE experience.

5. 논의

이 연구는 매체 환경 변화로 등장한 소셜 뉴스 이용에 주목하여, 뉴스 댓글 및 공유와 같은 온라인상의 뉴스 관여 행위가 어떻게 사회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그 영향을 세대별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더불어, NIE 경험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NIE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과 성인 모두 소셜 뉴스 이용은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상호작용성과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특징이 뉴스 이용과 뉴스 관여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한편,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여러 지점들이 오히려 소셜 뉴스 외의 뉴스에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집단에서는 전통 매체 뉴스 또한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반면 성인은 TV가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은 다매체 다이용 시대 속에서 뉴스 이용을 시작한다면 TV와 소셜 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행태(two-screen viewing)가 익숙하다면, 성인은 TV가 전달하는 뉴스를 집중하여 보는 뉴스 이용 행태가 익숙하다고 볼 수 있다.

eNews와 뉴스 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뉴스 공유에만 영향을 미쳤고, 성인의 경우에는 뉴스 댓글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신문사/방송사의 온라인 뉴스를 볼수록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를 자기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공유하기 보다는 뉴스 플랫폼에서 주어진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에 비해 즉각적으로 SNS나 메신저를 통해 즉각적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들에게,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더라도 뉴스 공유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들에게 친구 중심이 아닌 다른 광범위한 대중과의 소통인 댓글 공간으로 이전되기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NIE 경험과 뉴스 관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된다. NIE 경험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뉴스 댓글과, 성인의 경우에는 뉴스 공유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뉴스 이용에 대한 교육적 효과로부터 길러진 뉴스 리터러시나 뉴스 이용의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지 않은 뉴스 관련 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에게는 내 주변이 아닌 넓은 사회의 공론장에서 토론인 뉴스 댓글 참여에, 성인들에게는 메신저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뉴스 공유를 유도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청소년들은 뉴스 공유 역시 가벼운 감정의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성인의 소셜 미디어의 청중은 다양한 범주(학창시절 친구, 대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해관계자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이미지로 인해 메시지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편이다.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제이기도 한 뉴스 공유(Ihm & Kim, 2018)는 어느 정도 뉴스 이해에 대한 자신감 등을 갖출 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뉴스 공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eNews와 부적인 효과를 나타낸 TV뉴스는 NIE 경험이 있을 때, 뉴스 공유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 참여인 서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V, 신문, 라디오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서명과 같이 이슈 중심의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에 뉴미디어가 중요한 촉발매체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기반의 뉴스를 보면, eNews는 청소년, 성인 모두 서명운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전통적으로 설명되어져 왔던 뉴스 이용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보여준다. 눈여겨 볼 점은 청소년의 서명 참여에는 메시징 뉴스가, 성인집단의 서명 참여에는 SNS 뉴스가 영향을 미친 점이다. 메시징 뉴스는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전달되는 뉴스라면, SNS 뉴스는 대중성과 개인성의 중간 지점의 뉴스라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들로부터의 뉴스와 그 의견에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고, 성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광범위한 규모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뉴스 이용 경험보다 댓글 달기와 뉴스 공유의 영향력이 서명 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에서 의견의 표현과 교류를 참여를 증진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해왔듯이, 뉴스 관련 대화로서의 뉴스 관여가 정치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NIE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이다. 서명 참여 행동에는 청소년 성인 모두에서 NIE의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뉴스 읽기와 이해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성을 길러 사회 및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NIE의 기본적인 교육 효과가 본 연구결과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경우에 NIE 경험이 있을 경우, 뉴스 공유가 서명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NIE 비경험자에 비해 더 작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는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NIE 경험자들이 더 정치사회화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NIE 교육의 이론적 목표가 시민 교육이자 정치 교육으로서 뉴스 읽기를 다루고 있으며(김기태 외, 2008; 설규주 외, 2011; 원숙경·윤영태, 2016), 경험적으로도 본 연구에서 뿐 아니라 송원숙(2020), 이숙정·양정애(2017) 등의 연구에서도 공적 영역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장 효과(ceiling effect)와 같이 NIE 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들에게 뉴스 공유 경험 자체가 참여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NIE 비경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 수준도 낮고 뉴스에 대해 덜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뉴스 공유에 참여할 때 정치 참여가 유발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가짜뉴스 진파, 의견 극화, 비합리적 참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뉴스 환경을 고려할 때, 뉴스 공유와 정치 참여의 관계가 NIE 경험이 높은 성인들에게 더 약하다는 점은 다소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정보 및 뉴스 이용 관련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을 낮출 예방 요인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다(김은정·유홍식, 2020; 염정윤·정세훈, 2019; 차유리·한창현, 2018; 허윤철, 2020 등). 오정보 습득이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이나연, 2017),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역시 최근에는 정치적 대화가 감정적이거나 비합리적 참여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이 과정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hah et al., 2017). 이러한 관점에서 NIE 경험은 뉴스 관련 대화에서 즉각적으로 촉발된 서명운동 참여 등이 좀더 완화시킨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살핀 이 연구의 결과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소셜 뉴스가 뉴스 공유 및 댓글 참여에, 그리고 뉴스 공유 및 댓글 참

여가 참여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 운동 참여에 소셜 뉴스를 비롯한 어떤 뉴스 미디어 이용보다 뉴스 공유 및 댓글 참여와 같은 뉴스 관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이 강조하는 시민적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부분이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 모두에게서 두드러진 핵심적인 발견으로 정보적 미디어 이용이 시민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시민 간의 공적 소통을 통해 설명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한편,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로 촉발된 정치 참여를 설명할 때 고려할 새로운 요소들을 제시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건 뉴스를 많이 보는 경우 그것이 뉴스 대화로 촉발되는 경로를 보인다. 여기에서 나아가 미디어에 따라 뉴스 대화의 속성이 달라지는지 또 이 과정에서 참여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지는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가짜뉴스 공유와 의견 극화, 정치 참여 등이 중요한 사안(agenda)인 현재, 뉴스 이용의 플랫폼, 뉴스 관여의 성격 그리고 정치 참여의 성격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소셜 뉴스에서는 교류의 범위를 세대별 차이를 두어 살필 필요가 있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공유가 하나의 관계적 소통임을 볼 때(Thm & Kim, 2018), 뉴스를 누구에게 공유하는가 뿐 아니라 뉴스를 누구에게 공유 받는가 역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민적 참여를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계적인 유의 수준이었지만, 성인은 SNS에서의 뉴스가, 청소년은 메시징 앱에서의 뉴스가 서명운동 참여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소셜 뉴스의 공간의 관계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뉴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욱 탐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뉴스 리터러시와의 관계이다. NIE 경험으로 살핀 이 연구에서는 NIE 경험이 뉴스 이용과 뉴스 관여, 뉴스 관여와 정치 참여의 관계를 조절했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정보가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그 대안으로서 뉴스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 뉴스 이용 교육 경험의 조절 효과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후 연구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송원숙(2020)의 연구 결과에서도 NIE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NIE를 경험한 학생들과 달리 모바일 뉴스 및 메시징 서비스 뉴스 등 다양한 뉴스 이용과 정치사회적 참여의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의 최근 논의는 뉴스 소비, 정치 및 뉴스 관련 대화 그리고 정치 참여의 과정에서 촉발된 대화 및 참여의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hah et al., 2017). 따라서 이성적이거나 규범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성찰 또는 인지적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NIE 경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뉴스 리터러시 또는 비판적 성찰을 뉴스 이용과 대화, 참여의 관계에서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NIE 경험 시기, 기간, 개인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탐색하고 소셜 미디어 환경

에서 미디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러 합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변인의 설정 및 방법론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다르고 있는 다양한 영향 변수를 연구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등(Lee et al., 2013)의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기반으로 소셜 뉴스 이용을 추가하여 오늘날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 변인을 사용하여 뉴스 관련 대화를 세분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정치사회화의 주요 영향요인인 가족이나 친구 변인을 다루지 않았다. 2차 자료 활용의 한계로서 대인관계 변인을 다룰 수 없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개인의 대인관계 차원을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정치 참여로 서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만 다루었다. 정치 참여는 투표 같은 의무적 정치 참여와 서명, 집회 등 자발적 정치 참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정치 참여가 존재하므로 정치 참여를 다차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NIE 경험 변인과 관련된 한계이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NIE 경험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성인들의 경우 NIE가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주도된 바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NIE가 상당히 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NIE는 정보의 비판적 소비와 책임 있는 뉴스 공유 등을 포함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담으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하지만, 성인의 경험은 주로 논술교육 또는 교과교육 중심의 신문읽기 교육인 전통적인 NIE 경험(이숙정·양정애, 2017)일 것이다. 그로인해 이 두 집단의 NIE 경험 여부를 묻은 본 연구의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NIE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의 NIE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 NIE 경험자들 중에서도 한 번의 교육 노출과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육 경험 여부로는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NIE 경험과 그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hrman, E. H. (2006). Teaching about language, power, and text: A review of classroom practices that support critical literacy.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9(6), 490-498.
- Bennett, W. L. (2008). Changing citizenship in the digital age. In Bennett, W. L.(Ed.). *Civic online life: Learning how digital media can engage youth* (pp. 1-24).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 Y., & Han, C. (2018). Validation of the Literacy Scale for Internet Rumors Improving Behaviors. *Information Society & Media*, 19(3), 65-103.
- Chaffee, S. H., Ward, L. S., & Tipton, L. P. (1970). Mas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ism Quarterly*, 47(4), 647-666.
- Cho, J., Shah, D. V., McLeod, J. M., McLeod, D. M., Scholl, R. M., & Gotlieb, M. R. (2009). Campaigns, reflection, and deliberation: Advancing an OSROR model of communication effects. *Communication theory*, 19(1), 66-88.
- Chung, D. S. (2008). Interactive features of online newspapers: Identifying patterns and predicting use of engaged reader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3), 658-679.
- Claes, E., & Quintelier, E. (2009). Newspapers in Education: a critical inquiry into the effects of using newspapers as teaching agents. *Educational Research*, 51(3), 341-363.
- Dawson, J. (2018. 8. 21). Interpreting interaction effects. Retrieved from <http://www.jeremydawson.com/slopes.htm>
- Dostie-Goulet, E. (2009). Social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interest.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405-421
- Flanagan, C., & Galloway, L. S. (1995). Reframing the meaning of “political” in research with adolescents.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24(1), 34-41.
- Gil de Zúñiga, H., Jung, N., & Valenzuela, S.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36.
- Gil de Zúñiga, H., Molyneux, L., & Zheng, P. (2014). Social media, political expre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anel analysis of lagged and concur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12-634.

- Goode, L. (2009). Social news, citizen journalism and democracy. *New Media & Society*, 11(8), 1287-1305.
- Heo, Y. (2020). Influence of News Literacy on the Perceived Impact and Regulatory Attitude of Fake News : Definition of Fake News as Moderato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1, 506-534.
- Hermida, A., Fletcher, F., Korell, D., & Logan, D. (2012). Share, like, recommend: Decoding the social media news consumer. *Journalism Studies*, 13(5-6), 815-824.
- Hille, S., & Bakker, P. (2014). Engaging the social news user: Comments on news sites and Facebook. *Journalism Practice*, 8(5), 563-572.
- Hwang, Y., Park, J., & Kim, W. (2011). *News in Education and Its Educational Effects*. Seoul, Korea: Korea Press Foundation
- Ihm, J., & Kim, E. M. (2018). The hidden side of news diffusion: Understanding online news sharing as an interpersonal behavior. *New Media & Society*,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1461444818772847>
- Jung, N., Kim, Y., & De Zúniga, H. G. (2011).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and efficacy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4(4), 407-430.
- Kahne, J., Lee, N. J., & Feezell, J. T. (2012).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online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6, 1-24.
- Kim, E. & Yang, S. (2013). The new citizenship of digital natives and the influence of network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1), 305-334.
- Kim, E. & Yang, S. (2016). Internet literacy and digital natives' civic engagement: Internet skill literacy or Internet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438-456.
- Kim, E., & Yu, H. (2020). A Study on th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the Exposure and Acceptance of Fake New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21(1), 93-126.
- Kim, K., Kwon, H., & Kim, Y. (2008). *Analyzing the content of NIE program and verifying its effectiveness*. Seoul, Korea: Korea Press Commission.
- Korea Press Foundation (2017a). *2016 Korean Youth News Media Use Survey*.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9&bcIdx=18493>
- Korea Press Foundation (2017b). *2016 Korean News News Media Use Survey*.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9&bcIdx=18354>
- Kligler-Vilenchik, N. (2017). Alternative citizenship models: Contextualizing new media and the new “good

- citizen". *New Media & Society*, 19(11), 1887-1903.
- Lane, D. S., Lee, S. S., Liang, F., Kim, D. H., Shen, L., Weeks, B. E., & Kwak, N. (2019). Social media expression and the political self. *Journal of Communication*, 69(1), 49-72.
- Lee, C. S., & Ma, L. (2012). News sharing in social media: The effect of gratifications and prior experi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2), 331-339.
- Lee, M. N.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news literacy education for adolescents recipient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3(1), 111-155.
- Lee, N. J., Shah, D. V., & McLeod, J. M. (2013). Processes of political socialization: A communication mediation approach to youth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40(5), 669-697.
- Lee, N. Y. (2017). Media Use, the Acquisition of Misinform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6), 118-151.
- Lee, S. J., & Yang, J. (2017). The effects of news literacy on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6), 152-183.
- Lenhart, A., Madden, M., Macgill, A. R., & Smith, A. (2007). *Teens and social media*. Washington, DC: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 Luke, A. (2018). Critical literacy in Australia: A matter of context and standpoint. In *Critical Literacy, Schooling, and Social Justice* (pp. 168-188). New York, NY: Routledge.
- Mirra, N., Morrell, E., & Filipiak, D. (2018) From Digital Consumption to Digital Invention: Toward a New Critical Theory and Practice of Multiliteracies, *Theory Into Practice*, 57(1), 12-19, doi: 10.1080/00405841.2017.1390336
- Mitchell, A., Gottfried, J., & Matsa, K.E. (2015). *Millennials and political news*.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2015/06/01/millennials-political-news/>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Levy, D., & Nielsen, R. K. (2017).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7*.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Levy, D., & Nielsen, R. K. (2018).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8*.
- Östman, J. (2014). The influence of media use on environmental engagement: A political socialization approach. *Environmental Communication*, 8(1), 92-109.
- Pew Research Center, (2017. 10. 4). Key trends in social and digital news media. Available: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7/10/04/key-trends-in-social-and-digital-news-media/>

- Prensky, M. (2001a).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Prensky, M. (2001b). Do they really think differently. *On the horizon*, 9(6), 1-9.
- Prensky, M. (2004). *The emerging online life of the digital native*. New York, NY: games2train. Retrieved from http://www.marcprensky.com/writing/Prensky-The_Emerging_Online_Life_of_the_Digital_Native-03.pdf
- Rhee, J. W. (2009). Mediated Intervisibility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Discursive Public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6(2), 5-32.
- Rhee, J. W., Lee, J. H., Lee, S., & Hwang, H. (2019). Enhancing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Internet convers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2), 77-109.
- Seol, K., Kim, M., & Lee, B. (2011). A Study on Teachers' Understanding of Actual State of NIE and NIE Curriculum.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4(1), 71-94
- Shah, D. V. (2016). Conversation is the soul of democracy: Expression effects, communication mediation, and digital media.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1(1), 12-18.
- Shah, D. V., Cho, J., Eveland Jr, W. P., & Kwak, N. (2005). In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digital age: Modeling Internet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2, 531-565.
- Shah, D. V., McLeod, D. M., Rojas, H., Cho, J., Wagner, M. W., & Friedland, L. A. (2017). Revising the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for a new political communication ecolog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3(4), 491-504.
- Shehata, A., Ekström, M., & Olsson, T. (2016). Developing self-actualizing and dutiful citizens: Testing the AC-DC model using panel data among adolescents. *Communication Research*, 43(8), 1141-1169.
- Song, W. (2020). How effective is NIE for adolesc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a Use, News Literacy and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1), 49-76.
- Szabo, G., & Huberman, B. A. (2010). Predicting the popularity of online content. *Communications of the ACM*, 53(8), 80-88.
- Taylor, P. (2014). The next America. Pew Research Center, 4 April. Retrieved from <http://www.pewresearch.org/next-america/#The-Generational-Divide>
- Vaccari, C., Valeriani, A., Barberá P., Bonneau, R., Jost, J. T., Nagler, J., & Tucker, J. A. (2015). Political expression and action on social media: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wer- and higher-threshold political activities among Twitter users in Italy.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0(2), 221-239.

Valenzuela, S., Arriagada, A., & Scherman, A. (2012). The social media basis of youth protest behavior: The case of Chile. *Journal of Communication*, 62, 299-314.

Valkenburg, P. M. (2017). Understanding self-effects in social media.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3(4), 477-490.

Weeks, B. E., Ardèvol-Abreu, A., & Gil de Zúñiga, H. (2017). Online influence? Social media use, opinion leadership, and political persua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9(2), 214-239.

Won, S & Yoon, Y. (2016). A Study on News Literacy Education Program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1(4), 101-111.

Yum, J. & Jeong, S. (2019). Predictors of fake news exposure and sharing : personality, new media literacy, and motiv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1), 7-45.

최초 투고일 2020년 1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1년 2월 5일

부록

- 김기태·권혁남·김양은 (2008). <NIE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 검증>. 서울: 신문발전위원회.
- 김은미·양소은 (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권 1호, 305-334.
- 김은미·임소영·박현아 (2017).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뉴스 공유. <한국방송학보>, 31권 3호, 114-151.
- 김은정·유홍식 (2020). 이념 성향·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1권 1호, 93-126.
- 설규주·김명정·이봉민 (2011).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정치정보연구>, 14권 1호, 71-94.
- 송원숙. (2020). 청소년의 신문뉴스 활용교육 (NIE) 효과: 뉴스 이용, 뉴스 리터러시, 정치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권 1호, 49-76.
- 엄정윤·정세훈 (2019).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용 동기.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7-45.
- 원숙경·윤영태 (2016). 디지털 시대의 뉴스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1권 4호, 101-111.
- 이나연 (2017). 미디어 이용에 따른 오정보 (誤情報·misinformation) 습득이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1권 6호, 118-151.
- 이미나 (2011). 청소년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효과 연구-과당적 뉴스에 대한 프레임과 객관보도규범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3권 1호, 111-155.
- 이숙정·양정애 (2017).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권 6호, 152-183.
- 이준웅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5-32.
- 이준웅·이종혁·이상원·황현정 (2019). 인터넷 대화의 시민성 활성화 효과: 언론매체 이용이 인터넷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읽기와 쓰기가 학습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3권 2호, 77-109.
- 이화행·이정기 (2011). 청소년기 NIE (Newspaper in Education) 경험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신문 이용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456-488.
- 정문성·이종연·서정화·조규복 (2008).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회와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서

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성동·나은경 (2011).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권 1호, 242-286.

차유리·한창현 (2018). 인터넷 소문 개선 행동을 위한 이용자 리터러시 척도 타당화. <정보사회와 미디어>, 19권 3호, 65-10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a).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Retrieved from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9&bcIdx=1849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b).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Retrieved from: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9&bcIdx=18354>

황유선·박진우·김위근 (2011). <NIE와 교육 효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허윤철 (2020).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영향력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 범위 인식의 조절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506-534.

소셜 뉴스 이용과 뉴스 관여가 세대별 정치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예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양소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이 연구는 뉴스 이용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 소셜 뉴스 이용과 전통 뉴스 이용이 뉴스 댓글 및 공유에 미치는 영향, 이들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NIE 경험의 조절 역할을 청소년과 성인 세대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와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소셜 뉴스 이용은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와의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는 서명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소셜 뉴스 환경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라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있음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결과들에서 소셜 뉴스 중에서도 메시징서비스 기반 뉴스와 SNS 기반 뉴스의 차이가, 뉴스 관여 중에서도 뉴스 댓글과 뉴스 공유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에 기반한 뉴스 이용과 뉴스 관련 대화인지를 살필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뉴스 관련 교육인 NIE 경험은 청소년의 뉴스 댓글에, 성인의 뉴스 공유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서명 참여에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NIE 경험은 성인에서만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했다.

핵심어: 소셜 뉴스 이용,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뉴스 댓글, 뉴스공유, NIE